

# 중앙아시아 산업구조 심층분석 및 진출전략 카자흐스탄 현지조사 결과보고

2015. 4. 20.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개관

### 가.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15. 4. 9(목) ~ 2015. 4. 15(수) (입·출국일 포함)
- 출장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 출장목적: 1) 용역과제 “중앙아시아 산업구조 심층분석 및 진출전략” 계획에 따른 현지 조사 실시  
2)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기업들의 투자 및 운영 현황 조사  
3)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농업투자협력사업 가능분야 파악
- 출장자:

	성명	소속 및 직위
1	이대섭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2	최민정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초청연구원

- 방문기관: KOTRA 알마티 사무소,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알마티 분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업협의회, 고려인협회, 대우인터네셔널, CJ 대한통운, 알마티 시청 농업관리부

### 나. 출장 일정

일자	시간	내용
4.9(목)	13:00-16:45	인천 출발-알마티 도착(KC920)
4.10(금)	10:00-12:00	고려인 협회
	13:00-14:30	중소기업진흥공단
	15:00-17:00	KOTRA 알마티 사무소
	18:00-20:00	농업기업협의회
4.11(토)	-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4.12(일)	-	출장내용 정리 및 내부회의
4.13(월)	10:30-12:00	대우인터네셔널
	14:00-15:30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알마티 분관)
	16:30-18:00	CJ 대한통운
4.14(화)	16:00-18:00	알마티 시청 농업관리부
	23:15	인천으로 출발 (OZ578))
4.15(수)	07:50	인천 도착

## 2. 주요 논의 내용

### 가. 고려인 협회

- 일시: 4월 9일 (금), 10:00- 12:00
- 장소: 고려인 협회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Sergey G. Ogay(고려인협회 부회장)  
고려일보 편집장

- **(현황)** 1937년 강제 이주 당시부터 고려인은 농업 축산 분야에 종사하여 남부지역에서 농업 중심 마을을 형성하였고 현재까지 고려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지원책이 실행 (30~50%의 농업 지원금 및 세금 감면 등)
- 현재 유럽과 중국에서도 카자흐스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음
- 한-카 농업협력 계획 구상 단계: 현재 고려인 협회장이 카자흐스탄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특히 토지·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음.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농업발전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 외국인 투자 시 지분을 50%이상 가능하며, 민간기업 혹은 정부로부터의 토지 장기임대 가능하며 농업용 토지 임대 비용은 낮은 수준임
- 농산물 가공업 발달 수준이 낮아 가공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온실 농업 초기 단계에 있음. 주로 토마토, 오이, 상추, 꽃 등을 재배
- 작년 나자르바이예프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 관련 ‘특별 프로그램’이 발표 되었으며 500만 불 이상 투자 시 세금감면 및 특혜 혜택을 대폭 확대함
- 현재 경제특구(자유무역지구)는 총 네 지역에 생길 예정이고 알마티에 두 개 지역으로 한 곳은 농업위주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임. 현재 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고려인 협회 소속이며 중국과 한국에서 파트너를 모색 중에 있음
- **(제언)** 만약 한국이 ‘밀 재배’에 중점을 둔다면 유럽보다 경쟁력 갖추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밀 이외에도 온실재배를 통한 채소나 과일 등의 수익성 높은 작물들이 있으므로 이는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유망한 분야라 보여짐
- 한국이 밀 산업을 하게 될 시 주의할 점
  - 지역 선정: 남부 지역의 경우 풀기가 많아 기본 토양과 기후는 북부지역이 적합
  - 수확 기술: 콤바인으로 수확 시 많은 손실 발생
  - 파트너 선정: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 후 사업 착수 당부



<관련사진>

### 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 일시: 4월 9일 (금), 13:00- 14:30
- 장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이병하 소장 (알마티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 **(기관소개)**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1998년 시카고를 시작으로 한국기업이 해외진출 시 초기정착 법인 설립 도움 및 바이어 발굴, 통관 등 원스탑 시스템 지원
- 현재 20개 해외 사무소 중 코트라가 11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9개 사무소를 운영함
- 정보 부족 등 중소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시장조사, 마케팅, 유통 및 판로개척 지원
- 현재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연계되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시 계약절차의 간소화, 바이어의 신뢰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동종업체의 입점을 지양하여 마케팅에 대한 장점을 업체 간 공유 가능
- **(현황)** 현재 카자흐스탄 GDP의 70%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러시아 루블화 약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음
-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6%,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은 83% 감소
-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외환보유액이 가장 높고, 금융·경제 분야의 선진화 양상을 보임. 경제 회복을 위해 2015년 4월 26일 대통령 선거 이후 텡게화의 평가절상이 예상. 현재 1달러에 186달러에서 260텡게까지 추진할 계획임
- 달러 통제를 위해 ‘탈 달러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CIS 국가 내 단일 통화정책도 마련 중임

- 현재 제조업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중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은 통관비용과 물류비용이 높아 범용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과, 고부가가치 생산품을 수출하는 유럽과의 경쟁에서 다소 뒤처짐
- 2000년대 초반, 한국기업의 진출시도가 있었으나 판로개척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실패 사례가 다수임. 현재 한국 대기업 3곳(LG 조립공장, 대우 버스, 롯데제과)와 중소기업 1곳(케이블업체)가 있음
- 러시아 연방국으로서 소련시대의 제도가 남아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주의식 처리가 많으며 ‘판시’문화가 잔존해있음
- ‘카자흐스탄 2050’정책은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이 중심이고, 외자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외국 기업의 경우 ‘사업용 비자’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증빙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의 10%를 소득세, 11%를 사회세로 총 21%의 세금을 부과함
- **(전망)** 카자흐스탄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러시아·유럽과의 교두보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알마티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제 3의 도시 칩켄트 지역은 중소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 지역에는 4월 중에 농업용 배일러 업체를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를 받은 유리온실 및 곡물 선별기 업체 입주 예정임
- 현재 카자흐스탄의 농업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에 대한 관심 증가
- 카자흐스탄 남쪽지역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과채류의 저장창고기 유망할 것으로 판단
- 가격과 품질보다 판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인적네트워크가 기업진출 시 성공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 KOTRA 알마티 사무소

- 일시: 4월 9일 (금), 15:00- 17:00
- 장소: KOTRA 알마티 사무소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정외영(KOTRA 알마티 무역관장)

- **(현황)**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여지가 강하지만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우대 등) 관련 하부 시스템이 취약하며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음. 연관 산업 및 타겟 상품이 불분명하고 공급 및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가치사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 자원중심적 산업구조 탈피를 목적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타겟 시장설정과 관련시설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 현재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알마티에 입점해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관심 있는 현지인이 상당 수 있으나 투자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언)**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이용하여 내수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산업 고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유흥생산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대규모 투자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LG와 삼성의 경우도 20억 불 이상 투자했으나 실패하였음. 하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효과적일 것
- 산업기반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일제품이라 할지라도 한 단계씩 관련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 현재 가용농지 3700만 ha이나 실사용 농지는 2700만 ha인 것을 감안할 때, 관련 사업을 한국 종합상사가 추진하는 방안 제시. 농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국제 시장에서의 견제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정부 협력으로 추진해야 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카자흐스탄이 물류 허브임을 이용,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라. 한국 농업기업협의회

- 일시: 4월 9일 (금), 18:00- 20:00
- 장소: 알마티 가야 식당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김훈(시원디엔씨 이사), 민병훈(진영 무역회사 사장)  
윤종관(카자흐스탄 신문 편집장)

- **(협회 소개)** 한국농업기업협의회는 현재 2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 부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 1회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 모임 형태의 단체임. 현재 밀, 양파, 온실, 옥수수, 감자 등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애로 사항)** 현재 카자흐스탄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정부나 회사 차원의 간담회를 몇 차례 해보았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음

- 자원 산업의 경우 한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5개년, 10개년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상당예산을 투자하는 반면 농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투자 분야임
- 농업을 시작하는 초기 자본력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외국인 투자의 경우 농업 투자 법인의 지분이 100% 한국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함. 현지인을 대표 사업자로 내세우는 등 편법을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음
-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농업인이 소지하는 개인토지가 적기 때문에 담보물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가 매우 어려움
- 1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유통문제로 인해 매달 가격의 변동 추세 및 변화요소를 이해해야하며 기본 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농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카자흐스탄의 경우 정보공개가 되는 분야가 거의 없어 생산량 조사부터 개인이 직접해야하는 실정임)
- 현재 한-카 농업 MOU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씨앗 하나도 제대로 들여올 수 없는 실정이며, 농기계, 비료, 식물 검역 및 수출에도 어려움이 많음, 가장 기본적인 농업 요소들이 교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MOU 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현황)** 종자, 비료, 농약의 8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감자의 경우 1인당 연간 105kg을 소비하고 있고 씨감자는 네덜란드에서 들여옴) 농기계는 이탈리아, 스페인,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들여오고 있음
-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고려인에게 온실 500평 3동을 건설해 주었으나 고려인 협회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은 선진농업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종사자에게 까지 선진농업기술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임, 그러나 밀의 경우 농업생산기술은 상당 수준 앞서 있음
- 카자흐스탄은 밀 산업 강국으로서, 한국이 현지에서 밀에 대한 투자 후 밀을 역수입하는 것은 다소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 가격통제를 비롯한 정부통제가 매우 심한 농산물이며 물가안정화 차원에서라도 밀은 민감한 분야임
- 또한, 밀의 경우 강수량 변동 및 수확 후 관리 문제로 인해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밀 보다 대두나 옥수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두는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관수재배가 가능하며 중국의 콩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옥수수 또한 사료용 생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제언)** 지속적인 현지 상황 파악을 통한 데이터 구축과 장기 사업 계획이 중요
- ‘아그로 폴리스’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있으나 소유 지분이 한계가 있고 개인 땅은

장기임대가 안되며, 좋은 토지는 외국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또한, 척박한 토지에 기반시설을 세우고 갖출 경우 3년 내에 토지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한-카 양국간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카자흐스탄의 기후조건과 본래 원산지였음을 감안할 때 사과와 배를 장기적으로 생산하여 유럽과 러시아까지 판로를 넓히는 것이 방안이라 사료됨
- 카자흐스탄에서 농업 성공사례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선진기술도입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착오에서 비롯됨. 현지 사정파악을 위한 소요기간 약 3년, 다양한 작목과 기술을 접목하는데 2년 이상을 걸리는 것이 현실적임



<관련사진>

#### 마. 대우 인터네셔널

- 일시: 4월 13일 (월), 10:30- 12:00
- 장소: 대우인터네셔널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이정배(대우인터네셔널 알마티 부장)  
성견익(Ho Soo 사장)

- **(현황)** 카자흐스탄 현지에서의 농업은 다소 회의적임, 현지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알려진 부분이 거의 없음
- 알마티에서 캅차카이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면 대단위 비닐하우스와 화훼단지대 규모로 조성(이스라엘, 네덜란드 회사)되어 있어 점적식 호스를 판매 구상중임
-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내륙운송의 경우 한국에서부터 평균 60일의 내륙운송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곡물 및 농산물 품목의 물류는 기대하기 어려움
- 컨테이너 하나 당 평균 5,000-6,000달러의 비용이 들고 냉장컨테이너의 경우는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 기준은 최소 10만 불 이상의 제품이 물류 운반 되어야 함, 그러나 물류 회사의 경우 운송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 현재 밀, 보리, 카놀라를 이란에 수출 시도 중이며 제약이 많으나, 지난 2-3월에는 400만 달러, 5-6월에는 1천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됨. 이처럼 제 3국으로의 수출방안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밀의 경우 대부분 국영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한 수출경쟁력을 지닌 품목이기 때문에 다국적 밀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있음
- 현재 이란으로 직접 운송되는 철도노선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의 밀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카-중 경제자유구역을 실시하게 됨을 감안 할 때 밀 관련한 사일로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카스피해 항구에 밀 수출 부두를 건설하면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이처럼 밀 수출 통로를 판매루트와 연관하여 개발하고 있음
- 종자생산은 거의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음(곡물 종자의 경우 캐나다), 파종방식이 직파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종자사용량이 4-5배 이상 많음, 이런 경우를 보면 농업에 대한 정부통제가 완전하진 않으며 시장질서가 다소 혼란스러움을 알 수 있음
- 아시아종묘회에서 이번 5-6월 경 종자와 육묘를 혼합하여 시범재배를 할 예정임
- 최근 3-4년 전부터 정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나 3분의 2 이상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CIS 국가의 공통적 문제점은 물류이며 현재 가장 선호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임
- 카자흐스탄에는 100%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며 초기 투자가 선행이 되는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
- 카자흐스탄은 대부분 스텝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는 한정적이며, 채소와 과일은 공급물량이 부족함. 그러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종자산업을 시작하여 해외종자생산 기지로서 한국에 역수출을 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혹은, 가공식품을 식품회사에 납품할 수도 있음
- **(제언)** 채소생산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주요 소비 채소는 토마토, 오이)
  - 알마티는 고랭지 기후 (강원도 철원과 유사), 침켄트 지역 (전라남도 기후와 유사)
  - 토지가 넓어 교배 잡종이 거의 없음
  - 봄에 우박이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풍수해가 거의 없고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요고가 거의 없음, 현재 비닐하우스 도입으로 생산 안정화
  - 내수 시장이 큼

- 유망산업은 저장창고를 이용한 양파 및 채소 사업임. 양파의 경우 겨울 양파를 4-5월에 재배하여 이후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채소의 경우 저장창고 이용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씨 감자를 비롯한 종자 산업이 한국에게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시설 산업 투자를 하기에는 투명성 확보가 힘들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기적 연결이 어려움

#### 마. 알마티 농축산물 도매·유통시장

- 일시: 4월 12일 (토), 11:00- 15:00
- 장소: 알마티 농축산물 도매·유통 시장



#### 바.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알마티 분관)

- 일시: 4월 13일 (월), 14:00- 15:30
- 장소: 주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사관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총영사

- 고려인의 정착 시기부터 한-카 관계에서 농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업
- 시설농업을 구상중이나 관련 기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현재 고려인을 위해 만들어 준 온실이 있어(500평, 3동) 기술전수 및 활용이 가능해짐, 국립농업 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을 도모하려 하며 가칭 ‘한-카 그린 테크놀로지’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구상 중에 있음, 현재 농진청에서 소개 받은 전문가(공-경북대 교수, 온실- 전남대 교수, 과수- 전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구체적 구상 단계임
- 염도가 높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북부지방에서 효율적 연료를 사용한 온실재배가 당면 과제임
- ‘아그로 비즈니스 2030’에 따르면 대규모 농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수확 후 관리나 물류관련 산업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임
- 농기계사업은 동력, 크기, 기후에 따라 한국과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음
- 유라시안 경제 지구 확대 추세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안 물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부처 차원에서 농업 협력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원 외교 혹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농업기술협력이 중점이 되어야 하며 농업 대학간의 MOU 체결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음

#### 사. CJ 대한통운

- 일시: 4월 13일 (월), 16:30- 18:00
- 장소: CJ 대한통운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김상수(CJ대한통운 알마티 지사장)  
김영배(KPEC 카자흐스탄)

- **(KPEC 기업소개)** 3년 전 카자흐스탄에 진출 하여 100ha의 토지로 옥수수를 생산하여 1년에 1만 4천~5천 톤 생산 경험 보유. 현재는 1,200ha 토지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임대 방식은 49년간 정부에 토지를 임대한 사람에게 재임대 한 방식이고 정부 구매 방식으로 판매했음. 작년 기준, 카자흐 농법으로는 ha 당 12톤 한국 농법으로는 8 톤 생산했음
- **(CJ 대한통운 소개)** 알마티 진출 한지 1년 7개월 되었으며 내 달 5월부터 법인으로 설립. 아웃 바운드 화물로는 감초와 녹용이 있고, 현지 토마토캐첩 업체를 입찰하고 있으며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이용함, 한국으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물류비가 전체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 수축국으로 생각하고 있음
- **(현황)** 현재 다국적기업, 곡물기업이 전량 정부구매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 있으며 ha 당 600KZT를 지원해 주고 있음
- 비료와 영양제, 사료 공급이 부족하며 이는 주로 듀풍과 파이오나 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도로 및 주요도시 터미널 사업을 통해 ‘제 2의 실크로드’건설 국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물류인프라와 도로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음. 또한 ‘하르고스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제인)** 밀 가공품 수출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저장창고 사업의 경우 수익률을 크게 기대할 수 있음, 생산 후 저장 보관 시 4-5월 경에는 3배 이상의 수익 창출 가능. 저장창고 냉장 습도 온도조절 장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세일로가 경제성이 높으나 인허가 관세가 까다롭기 때문에 농사를 대단위로 짓는 기업만 가능할 것임
- 농업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이 소요되므로 장기 플레이 필요하며, 판매, 관리, 유통, 판매, 저장에 가장 필요로 되는 사업 분야임

#### 아. 알마티 시청 농업관리부

- 일시: 4월 9일 (금), 10:00- 12:00
- 장소: 알마티 시청 농업관리부
- 주요참석자(면담 및 회의): Seiolakamatov Adis (알마티 시청 농업관리부 부장)  
Kaken Kanat (알마티 시청 농업관리부 차장)

- **(현황)** 이번년도 3월 ‘농업관리부’라는 자체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조직 안정화를 목적으로 알마티 시청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알마티에는 약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 농업사무소는 별도로 있음. 알마티의 GDP는 카자흐스탄 전체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4억달러) 세금의 20%, 전체 시장의 50%, 투자의 11%가 알마티에 집중되어 있으나 농업은 전체 GDP의 (2014년 기준) 5%를 차지함, 알마티는 시장의 도시이자 수출의 시작이며 금융권이 가장 잘 발달된 도시임
- 농업관련 가공이 부족한 실정이고 축산이 발달하여 우유공장은 많은 편
- 알마티 근교에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유제품 기업인 다농과 롯데-라하트 기업이 합작형태로 있음
- 농업개발과 식품개발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알마티는 외국 민간기업에 대한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음

- 현재 기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약 40% 정도 완성되었으며 ‘아그로 2020’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2천만 달러이상 투자 시 국가에서 투자금의 30% 이상 환급해주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
- ‘아그로 2020’에는 농업관련 프로그램이 많으나 알마티에서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농업관리부의 신설로 인해 앞으로 관리체계가 분명해 질 것임
- 농업은 양파, 옥수수, 감자, 대두를 주로 하고 있으며 농업 특구가 생길 예정임, 채소 건조 공장을 포함하여 농업가공 존(Zone)이 생길 예정임
- 카자흐스탄은 자연환경이 좋아 친환경식품을 생산 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한국과의 농업협력도 기대하고 있음, 특히 기술도입에 대한 부분이 활발해지기를 희망함
- 현재 가공, 기술, 유통 산업단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수입 닭고기를 소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전체에 종자 산업이 발달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카자흐스탄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 알마티에는 종자 산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심이 있음
- 알마티에서 가공 기술이 발전한다면 카자흐스탄 전체로 판매할 수 있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희망함
- 시설 비닐하우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제대로 만들어진 곳은 거의 없으며 현재 네덜란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냉동 저장창고는 알마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 곳이 있으나 그 규모가 작음, 대규모 확대를 구상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 식품가격이 안정되지 못해 수확 시 보다 저장고에서 판매할 경우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사진>